

'재선' vs '여당 탈환' 윤씨 문중 간 대결

수성에 나선 '대안정치' 윤영일 의원 민주당 윤재갑·윤광국 등 도전장 바닥민심 다지며 경선 준비 꼼꼼히 이영호 전 의원도 출마가능성 거론

내년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해남 윤씨 문중 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윤영일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윤재갑 지역위원장과 윤광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맞서는 형국으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윤영일 의원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UN 감사실 감사관, 감사원 산업환경감사국장 총괄과장, 감사원 비서실장·사회문화감사국장·재정경제감사국장 등 감사원에서만 공직생활을 했다.

20대 총선에서 윤 의원은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를 제쳤다. 국민의당 돌풍에 힘입어 54.38% 득표율로 41.24%를 기록한 김지사를 13.14%p 차로 앞서며 금배지를 달았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가칭)대안정치연대 소속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정당 순, 정당 내는 가나다 순
※현직 공직자는 당적 보유 불가로 정당 표기 생략

이름	윤광국	윤재갑	윤영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칭대안정치
나이	60	64	61
약력	국균발전위 자문위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의원에게는 평화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과 같은 문중의 윤재갑 지역위원장과 윤광국 자문위원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컷오프 당한 후 무소속으로 첫 도전에 나서 20.86%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중진 간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윤 의원

과 단일화에 나섰다가 패배, 중도사퇴했다. 김민석 전 의원과 함께 '원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위원장은 2017년 합당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된 이후 지난해 해남군수 경선에 나섰으나 당시 이길은 후보에게 석패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지역위원장이 된 윤 위원장은 꾸준히 지역민과 접촉하며 지지기반을 다지는 등 내년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며 "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의원이 나와야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해남군수 경선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이후에도 해남에 감정평가사무실을 낸 뒤 끊임없이 주민들과 만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한때 국민의당에 속하기도 했던 윤 자문위원은 바른정당과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후 윤 자문위원은 출마 의지를 다지며 권리당원 모집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등 당내 경선을 꼼꼼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자문위원은 "해남지역은 국회의원, 군수가 모두 세력이 약한 야당이라 지역사회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회의원부터 민주당원으로 바뀌 지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거구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완도 출신의 이영호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전문가이자 생명산업 전문가로 평가되는 이 전 의원은 완도 출신이지만 1997년부터 해남에서 23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역에서 농민이나 어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선거에 나서겠다는 결정은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생명산업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출원/기자 repo333@srb.co.kr

'현역 프리미엄' 서삼석 꺾을 후보 나오나

작년 재선거 이어 2년만에 선거 전남도당 위원장 등 입지 탄탄 배용태·백재욱 등 당내 '도전장' '영원한 맞수' 이윤석 대결 관심

내년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다.

19대 총선까지 무안·신안이 선거구였지만 20대 총선에서 영암이 포함되면서 영암 출신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힘입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법 등 위반으로 낙마하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실시됐고 이 선거를 통해 서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 지역구는 2년도 안 돼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다 서 의원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에서 민심을 얻고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 출신인 서 의원은 박석무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5·6대 전남도위원을 거쳐 3선 무안군수를 지냈다. 이후 3번의 총선 도전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들어가 운영위와 예결특위 위원, 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아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정당 순, 정당 내는 가나다 순
※현직 공직자는 당적 보유 불가로 정당 표기 생략

이름	배용태	백재욱	서삼석	이윤석	임흥빈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나이	64	54	60	59	58
약력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전 전남도의원

수자원 확보, 농어촌여성 삶의 질 향상, 농수산물 수급 안정,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근해어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주축하고 예결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전남·광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소금처럼 정직한 밥과 씹는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맞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노리는 입지자는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있다.

신안 출신인 백재욱 전 행정관은 '당료 출신'으로 9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이상을 중앙당에서 정치를 배웠다. 당 조직본부 부본부장과 사무

부총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재선거에 도전했다가 서 의원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바닥민심을 닦아 왔다.

백 전 행정관은 "호남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만들었지만 실상 집권당이 명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호남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 출신의 배용태 전 부지사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과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중앙·지방행정을 아우른 행정전문가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포포시장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

배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선거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연수원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배 전 부지사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보다 잘 사는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선거구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정치 맞수' 서 의원과 이윤석 전 의원의 4번째 리턴매치 여부다.

지난 2012년 민주당합당 경선에서는 이전의

원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서 의원이 승리했다. 1승1패로 호가를 이뤘던 두 사람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화당으로 갈린 재 정면 승부를 벌여 서 의원이 승리를 거뒀다.

내년 총선에서 서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이 전 의원과 '본선 리턴매치'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의원은 전남도의원 3선 후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황호순 후보(통합민주당)와 DJ 차남 김홍업 후보(무소속)를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다. 이어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동선대에서 북한 정치를 강의하는 한편 지역에서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아직 평화당을 탈당하지 않았지만 대안정치연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은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니다"며 "호남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통해 지역민들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는 임흥빈 전 전남도위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신안군수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복당하지 않고 '반서삼석 연대'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당해서 경선한다 해도 도당위원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출원/기자 repo333@srb.co.kr

2019 달빛(광주·대구) 청년들의 광주 명소 투어

달빛 청년 어울림 한마당

날 짜
· 2019. 10. 11(금) ~ 12(토), 1박 2일

대 상
· 광주·대구 청년 (각 40명/총 80명, 선착순 모집)

코 스
· 1일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비엔날레 ▶ 와이즈파크 ▶ 평민마을양동시장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2일차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광주공원 ▶ 천연염색체험 ▶ 시상식

참 가 비
· 무료 (호텔 숙박, 기념품, 단체티 증정)

주요프로그램
· 마추한 달빛 : 문화지식 배움 및 청년 교류 활성화 - 오리엔테이션 및 미션 수행을 통한 팀구성, 서바이벌 게임 등
· 깊어진 달빛 : 근현대 주요 역사 문화시설 및 미식장소 탐방 - 공연·전시·행사, 체험, 여행, 커피 등 키워드별 체험 / (충정로) 광주 향토음식 체험 / (동명동) 카페거리 투어 / (양림동) 평민마을 등 광주지역 근대문화유산 투어
· 익숙한 달빛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문화 심층 이해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체험 및 천연염색 스카프 제작 / (광주공원) 산책 및 자유소통 / (문화전당) ACC 전시관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람 / (ACC디자인호텔) 향수제작 체험

참가문의
· 무등일보 사업국 062)606-7778

주 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주 관 : 광주문화재단 | 후 원 : 무등일보 | 每日新聞社 | 엠디에스엔씨